

2016 사순 제1주일 바티카니언

빵에 관계되는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인’ 말은 하느님 말씀 없이는, 그것이 아무리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릴지라도, 결코 악마의 말이 되고 맙니다. (...)
너무도 인간적이라 악마적일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말을 ‘단식’ 할 때 하느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2016년 사순 시기 묵상집에서, 선교사목국)

사순 제1주일

제1독서 신명기 26, 4~10

화답송 시편 91(90), 1~2, 10~11, 12~13, 14~15 (© 15L 참조)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1.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2.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3.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

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4.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제2독서 로마서 10, 8~13

복음 환호송 마태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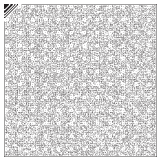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복음 루카 4, 1~13

영성체송 마태 4, 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광야란?



장민호
미카엘 신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서 40일간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오늘 복음은 전합니다. 광야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으로 사람이 생활하기 힘든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탈출 16, 3)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탈출 17, 3)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물과 음식의 부족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충신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시며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는 분임을 체험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름, 불, 만나, 메추라기, 구리뱀 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광야는 시련의 장소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는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 바로 ‘여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시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때로는 불평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사는 이곳이 또 다른 광야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나에

게 ‘하느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라고 느끼며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도 시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유혹자가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느님 말씀을 통해 그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혹에 빠졌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해야겠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신명 8, 3 참조)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신명 6, 13 참조)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 6, 16 참조) **■ 울하성당 주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가톨릭부산 페이스북, 트위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catholicbusan
www.twitter.com/catholicbusan

지금 여기



나는 나무다 - 하나

흙이 많지 않은 바위산.
비도 거의 오지 않는 척박한 땅에 나는 뿌리를 내리고 있다.
건조한 대지와 공기가 만든 새벽이슬을 받아 마시며 살고 있어 남들은 말한다.
그래서 향이 좋다고, 나무가 단단하다고.
그렇다. 나는 그런 나무다.

글·그림 : 이영 아녜스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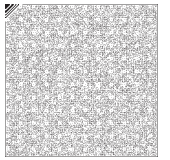
BC부신평회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2.15(월)~16(화)
장민호 신부(울하성당 주임)
2.17(수)~20(토)
유연창 신부(남산성당 부주임)

문자참여 #2340

- ◆ **사랑이 있는 세상** ◆
월~목 12:15~14:00
2.16(화) 본당이야기-모라성요한성당 (최요섭 주임신부와 교우들)
2.18(목) 퀴즈포트 '성경에서 온 그대' 출연 : 표용운 신부(명지성당 부주임)
- ◆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
2.19(금) 12:15~14:00
진행 : 이재석 신부(영성의집 제2부원장)
출연 : PAX(대구대교구 생활성가팀)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공복자 유스티나

세상 사는 데에는 사랑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픔도 슬픔도 숨쉬기도 행동 하나에도 사랑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하면 죽어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흰 피가 솟았다.'는 우국충절의 이차돈, 백의 천사 나 이팅계일, 수녀님, 스님까지도 사랑으로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은 줄 알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그 고통으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의원에 가보니 좌골신경통이었습니다. 팔, 다리, 손, 발에 침을 꽂아서 꼼짝을 못하는데 커다란 침을 허리에 도 꽂고 치료를 하는데 그 고통은 아

기를 낳는 고통보다 심했습니다.

아프니 정말 구하여지더라고요. 육신의 고통은 토마스의 믿지 못하는 신앙에서 주님에게 절실함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으로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기도가 닿았음인지 마음속 번뇌와 육신의 고통이 서서히 가라앉는 신비스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마태 9, 21) 하면서 드린 기도가 “딸아, 용기를 내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태 9, 22)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어 꿈을 꾸면 나는 여지없이 초등학생의 어린 모습으로 엄마를 애절하게 찾는 아이였는데 신비로운 체험을 한 후, 초등학생의 어린 모

습이 아닌 아들 둘을 걱정하는 엄마가 되어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만화 영화를 본 듯한 시간 여행을 온 느낌으로,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픈 몸이 나아지면서 잠재되어있는 자아도 성숙했는지 무의식 속의 어린 자아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대침을 거뜬히 맞을 수 있고 좌골신경통은 몰라보게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순 시기가 되면 허리가 아파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잠 못 이루던 기억을 떠올리며, 새삼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필요하면 구하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구하며...

“주님! 건강하게 주님 성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교구평협 홍보분과장 kongbog@hanmail.net



오래된 유혹 -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루카 4, 3)

사십일 동안 광야에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고 표현되는 이 장면을 악마와 예수님 사이에 펼쳐진 대결(?)로 보는 것 보다는 당신의 내면 안에서 이루어진 고민과 숙고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은 자명하다.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마치 악마와 대결하듯 치열하였을 법하다.

빵이 돌처럼 많아지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환상을 가지며 우리는 오랜 경제발전의 시절을 인내하며 보냈다. 기업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고, 경제 규모가 커져서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내 살림살이도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다지며 매일을 버티며 살아왔다. IMF 구제금융 시절, 금융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금 모으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리고 ‘정리해고’라는 제도도 가까이 수용했고 ‘비정규직’이라는 낯선 제도도 일상으로 받아들였다. 어떻게든 경제성장이라는 자전적 바퀴를 멈추지 않으려 다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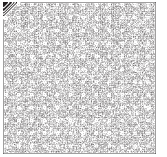
그렇게 버텼다. ‘낙수효과’라고 부르는 검증되지 않은 이론을 경제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왔다. 그러는 동안 ‘분배’는 낯선 단어가 되었고, ‘양극화’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우리는 성장이라는 오래된 유혹에 늘 압도당하며 살아왔다.

빵이 돌처럼 많아진다 해도 그 많아진 빵을 또 누가 가져가겠는가? 예수님은 고민과 숙고를 마치고 광야를 나오신다. 그리고 당신의 길, 노선, 방법을 묵묵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 우리는 성 금요일 수난 예식에서 당신의 결정 내용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는 방법!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가르침.

분배라는 단어가 너무 세속적이라면 ‘나눔의 구조화’나 ‘사랑의 시스템화’ 정도로 불러도 무방하다. 애덕 실천의 열정은 애덕이 ‘사회화’ 되는 데까지 도달해야 한다.

■ 김상호 신부(신선성당 주임) airjazz@hanmail.net

아저씨의 새로운 희망



약 두 달 전쯤 복지관에서 자원 봉사하시는 할머니로부터 이웃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도와 달라는 간곡한 청탁(?)을 받은 우리는 방문하였습니다.

산복도로의 좁은 골목을 따라 올라간 우리는 눈앞의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그곳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폐가였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니 작고 뚱뚱한 체격에 술 냄새를 풍기는 아저씨 한 분이 문을 열고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거부의 손짓을 하며 문을 도로 닫고 들어가셨습니다.

2시간을 넘게 설득한 후 겨우 들어간 집안은 이불과 옷가지, 각종 생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운신하기도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조실부모한 후 결혼을 했으나 아내는 어린 아들만을 남

겨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여 술로 세월을 보냈고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 아들은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나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저씨를 도와 드리기 위해 우리는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로사리오카리타스에서 기본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아저씨의 삶에 희망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작정 도움을 드리기보다 세상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드리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연습의 목적으로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저씨는 비록 서툴지만 복지관의 이

곳저곳을 청소하시고 복지관의 차도 깨끗이 세차를 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이 일을 하여 떳떳하게 대가를 받아 가시는 것에 행복해하며 또한 아저씨의 아들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약속하여 저희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작은 고민들이 더 나은 도움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지난 1월에 소개된 ‘불법 체류라는 감옥’의 사연이 나간 후 외국인 노동자 부부의 아기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정성은 아기의 병원비로 사용되었습니다.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천주교 부산교구



성경을 읽다 보면 ‘할렐루야’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전례 때도 자주 사용되던데, 어느 나라 말이며, 무슨 뜻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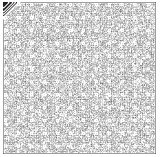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여라’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입니다. 옛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인데 ‘할렐루-’는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힐렐’의 명령형으로 ‘여러분들은 누구누구를 찬양하십시오’라는 뜻이고, ‘야’는 하느님 이름 ‘야훼’의 약자로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이사- ‘야’, 예레미- ‘야’와 같이 예언자들의 이름이 ‘야’자로 끝나는 것도 주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데 시편 104장부터 나오는 몇몇 시편들은 할렐루야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거나 마무리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들은 대부분 어떤 처지나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선택하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이 시편들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역시 매일 미사 때 복음을 봉독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구원 업적을 이루신 하느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노래합니다.

이처럼 할렐루야는 이미 구원을 입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구원을 보지 못하였으나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지닌 이들이 외치는 노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매일 미사 때 이 노래를 외칠 때마다 주님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확신에 가득 차 할렐루야라고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아멘’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염철호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jubo@catb.kr

회장단 · 총무 연수



다 시야를 넓혀 편협한 관념을 깨뜨리는데 힘써야하며, 나아가 바오로 사도를 통해 깨달은 그 길을 오늘날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히 미사 중에 선교상(본당-금상 화봉성당, 개인-금상 주미자 마리아(반여), 기관-성모여자고등학교), 평신도 교리교사 근속상(15년 2명, 10년 9명, 5년 11명), 사랑·봉사상 시상식이 있었다. 또한 교구 사무직원연합회에서 필사한 신·구약 성경필사본 전달식도 있었다. 선교사목국(국장 : 장재봉 신부) 주관 수상자 명단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일) 10:00 양산 정하상바오로영성관에서 본당 회장단 및 교구 제단체장, 본당 총무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회장단·총무 연수’가 있었다. 이날 연수는 2016년 부산교구 사목지침 설명 및 기초공동체 복음화의 해 특강, 교구·울산대리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 ‘자비

의 희년’을 주제로 교구 총대리 손삼석 주교의 특강, 파견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2016년도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으로 이기대성당 도옹희 토마스 아퀴나스(교구), 복산성당 박영찬 요셉(울산대리구) 씨가 선출되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황철수 주교는 미사 강론 중에 “우리는 보

청년 브레시디움 활성화를 위한 청년 Pr. 간부 간담회



1월 17일(일) 교구청 5층 강당
부산 바다의 별 레지아(지도 : 장재봉 신부, 단장 : 김정균 노엘)
교구 현황 - 19개 청년 브레시디움, 140여 명 단원 활동

고등부 의장단, L.T

지난 1월 22일(금)~24일(일), 1월 29일(금)~31일(일) 푸른나무 교육관에서 2016년 각 본당 고등부 학생회를 이끌 의장단 2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8회 의장단 Leadership Training’ 1, 2차 교육이 각각 있었다. ‘함께하는 리더가 되자’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의장단 교육은 갈래 모임, 의사소통 강의, 포크댄스, 십자가 경배, 의장단 수칙 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사목국(국장 : 권동욱 신부, 담당 : 정철용 신부) 주관

제334차 ME주말



1월 22일(금)~24일(일) 마리아피정센터 / 19부부 수료
ME부산협의회(지도 : 송현 신부, 대표부부 : 김형진 토마스&이경희 루시아)



1월 26일(화) / 주임 : 이창진 신부, 단장 : 권동숙 토미카



1월 27일(수) / 주임 : 박재구 신부, 단장 : 이옥자 수산나

교 구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

· 2.15(월) 10:00 목주기도, 10:30 미사
· 교구청 2층 성당 / 문의: 629-8760~2(성소국)

2월 부산교구 혼인 강좌 안내

· 2.28(일) 14:00~17:50 · 가톨릭센터
참가비: 1쌍 4만원(선착순 50쌍) / 혼인강좌 교육부
사전 접수: 462-1870(당일 접수 받지 않음)

예비신학교 등록

대상: 사제성소에 관심이 있는 중1~고2 남학생
(2016년 기준) / 문의: 629-8760~2(성소국)
예신입학식: 3.13(일) 13:30 신학대학
등록마감: 2.16(화) / 등록방법: 성소국 홈페이지
(http://sungso.cath.kr) 및 교구공문 참조

CUM 기자단 모집

대상: 중1~고1(2016년 기준) / 분야: 취재반, 사진반
서류: 신청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추천서, 부모님 동의서 / 접수: cum1318@hanmail.net
문의: 629-8742, 8746(청소년사목국)

본 당

삼계성당 마리아 영성피정

· 2.18(목) 13:00~16:30 · 삼계성당
내용: 성체현시, 강의, 미사, 안수
강사: 강요셉 신부 / 문의: (055)331-2963

화명성당 사무직원 구함

자격: 회계, PC능숙(한글, 엑셀), 1종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 / 문의: 341-7770(사무실)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관 · 제 단체 · 위원회

울산 파티마의세계사도직 월미사

· 2.15(월) 09:30 목주기도 15:00 미사
· 우정성당 / 문의: 010-2428-5785

교정사목회 후원회 미사

부산: 2.16(화) 14:00 가톨릭센터 경당
울산: 2.27(토) 10:00 옥동성당
문의: 441-7729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2.15(월) 19:30 · 가톨릭센터 소극장
주제: 일반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 강사: 김선실(정대협 공동대표)
문의: 465-9508(정의평화위원회) / 무료 강의와 미사

빈민사목 후원 미사

· 2.15(월) 10:00 · 문현성당
주례: 윤희동 신부 / 문의: 467-1045(빈민사목)

빈민사목 반송 빛돌레 나눔가게

의류, 깨끗한 운동화, 생활용품(가방, 신발, 액세서리)
문의: 542-0242, 467-1045, 010-2886-6467

오순절평화의마음을 후원회 미사

부산: 2.15(월) 11:00 · 남천성당
문의: 782-0765

오순절평화의마음을 철야기도회 찬미의 밤

· 2.16(화) 23:00~익일 04:00 / 문의: 010-8006-4881
강사: 박상규 신부(콘벤투알프란치스코수도회)

부산교회사연구소 순교자 현양 미사

· 2.20(토) 11:00 · 가톨릭센터 경당
주례: 순교자현양위원회사제단 / 문의: 462-1784

부산 마리아사제운동 다락방기도 및 월미사

· 2.16(화) 14:00 · 가야성당 / 지도: 윤명기 신부
문의: 010-8879-2376(회장)

오륜대순교자성지 후원회 미사 및 특강

· 2.18(목) 11:00 · 오륜대순교자성지성당
주제: 병인박해와 순교자들 / 문의: 515-0030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회장단 회의

· 2.16(화) 11:00 / 대상: 회장 및 지도조장
· 토현성당 / 문의: 466-2290

평신도선교사회 정기총회

· 2.20(토) 14:00 / 문의: 462-0334
· 부산 가톨릭 신학원 1층 대강당

지속적인성체조배회 기도학교(12주)

· 2.23~5.10 14:00~16:30 매주 화, 가톨릭센터 3층
· 2.24~5.11 19:30~21:30 매주 수, 가야성당
주제: 성체조배와 삶의 복음화 / 수강료: 6만원
대상: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전 신자
강사: 최재용 수사 신부(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회)
문의: 466-2290, 010-9331-2291

성령봉사회 (055)382-9465 영성의 집

· 젊은이 성령기도회
· 2.15(월) 19:30 전포성당
· 2.18(목) 20:00 울산 북산성당
· 성모님과 함께하는 100단 목주기도
· 2.15(월) 11:00 (안수/중식 제공)
09:30 부산역 2번 출구 스타일 웨딩홀
09:30 동래 전철역 09:40 온천장 전철역
· 수요치유기도회
· 2.17(수) 11:00~16:00 / 중식 제공
09:05 해운대 주공 3단지 09:35 원동IC
09:30 부산역, 동래 전철역 09:40 온천장 전철역
· 교구 철야기도회(치유의밤)
· 2.19(금) 23:00~다음날 04:00
· 교구 성령목사회
제407차(젊은이): 2.19(금) 11:00~21(일) 17:30
제408차(일반): 2.26(금) 11:00~28(일) 17:30
회비: 10만원(일반 교재비 3천원 별도) / 당일 지참
10:00 동래 전철역 3번 출구 앞 지하도 입구
울산대리구 (052)244-7014 울산 영성의 집
· 울산 철야기도회(치유의밤)
· 2.18(목) 22:00~02:00 울산 영성의 집
강사: 김재중 형제(광주대교구)

전례꽃꽂이연구회 사순피정 및 특강

· 2.22(월) 10:00 · 오륜대 분도 명상의집
문의: 010-8888-5912, 010-4554-1173

4.16 '기억과 약속의 길' 순례 참가자 모집

· 2.20(토) 07:00 동래역 출발 · 안산단원고, 분향소 외
참가비: 2만원(비회원: 3만원) / 신청: 2.15(월)까지
문의: 465-9508, 010-8365-0155(정의평화위원회)

음악교육원 신입생 모집(2년과정)

주간: 교회음악사, 발성법, 시창창음, 폴리포니, 합창
(매주 화요일 10:30~15:20)
야간: 발성법, 시창창음, 폴리포니, 합창
(매주 화요일 18:50~21:50)
개강: 3.8(화) / 신청은 3.7(월)까지
문의: 517-8241~2, www.bcmusic.or.kr/mec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16학년도 1학기

제2기 중독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교육: 3.12~11.26 둘째, 넷째 토 09:00~17:00
수강료: 일반 50만원, 자격증반 90만원
자격증: 중독전문가 2급(NO.2014-4368)
· 제1기 수료생 전원 합격
· 국내 최고의 중독전문가사진으로 구성
문의: 510-0952~3, edu.cup.ac.kr

부산교구 공영교구 하늘 공원

매장모 - 만장 불안당
개인단, 부부단, 가족단 분양
가족 분양모 6위형, 8위형 분양
* 운영 시간: 09시~17시(연중 무휴)
* 분양 문의: 관리사무소 Tel. (055)374-8732~3

2016년 부산가톨릭신학원 신입생 모집 모집인원: 주간, 야간 각각 40명

수업 연한 * 2년(4학기): 3월~6월 초, 9월~12월 초
■ 주간: 주3일(화 11:00~17:00 / 수, 목 14:00~17:00)
■ 야간: 주3일(화, 수, 목 19:00~21:00)

지원 ■ 모든 수도자와 세례받고 1년이 넘는 평신도
자격 ■ 대학 강의를 듣기에 충분한 고졸 이상 학력자

입학전형 * 원서접수: 2.22(월)까지 * 토, 일 제외
■ 입학서류: 입학원서(신학원 양식), 세례증명서, 교적사본, 증명사진(3X4) 3매
■ 원서교부: 홈페이지(cafe.daum.net/catholic-sinhak), 본원 교무실

교과과정 및 교수진 신학대학의 교과목을 따라서 종교철학, 성서신학(모세오경, 예언서, 복음서, 요한문헌 등), 조직신학(그리스도론, 교회론 등), 실천신학(사회교리, 전례신학, 교회법 등)으로 편성되고, 거의 모든 과목을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강의합니다. * 일부과목 청강 가능

문의: 051-464-7591
부산시 금정구 기차로 102번길 56-7(부곡동)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내 신학원
* 정규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게 교구장 주교님 명의로 선교사, 예비신자 교리교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다양한 예물과 시계
각종 보석 도매, 목주반지 전문

서울공예사
범일동 역 12번 출구 중앙 귀금속 115호
(주.야)631-5006, 631-5007
황인환(가롤로) · 김경자(모니카)

분도목공소
제대, 강론대, 장패들 등
각종 성구 제작
www.bundwood.kr
공 장 : 262-1959
대표번호 : 1544-2391

since 1977
보이지 않는 보청기
디지털보청기 전문 취급

한독보청기
김무남(아우구스티노)
632-2248, 2360

물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보수

삼일누수탐지공사
수도배관, 보일러배관 등 각종 누수
인터넷 검색어: 삼일누수
전화: 202-3011
이 국 영(베드로)

포장이사 전문업체

성신이삿짐센터
(영구크린 부산지점)
이사와 청소를 한번에 해결해드립니다
242-4222
010-8521-2488

동국자동차매매상사
신차, 중고차, 매매, 수출, 할부, 폐차
상담. **010-3599-6420**
현 종 삼(요셉)
부산 1단지 관여 제14호

금석 · 제이스
귀금속 도소매
각종 보석, 다양한 예물과 패션제품, 커피링
목주반지 전문 / 박정희(요셉), 손해경(요세파)
644-3630~1, 010-3558-3630
010-8661-3631
현대백화점 맞은편 귀금속 테마거리 중간 단독 매장

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 치 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출구 50m

거 제 주 단
주단, 포목, 혼수, 예단 도소매
박대수(야고보), 최복순(테레사)
점포: 632-0696, 집: 416-9168
후대폰: 010-9331-6633
진사장 1층 주단부 318호 1층 8호로만 약속 화장실

가톨릭여행사
3/28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벨기에 375만원
4/8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원
4/21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12일 415만원
문의. (02)319-2533

여성그레고리오성가단 단원 모집
 연습 : 매주 수요일 10:00~12:00 음악교육원
 월미사 : 매월 둘째주 목요일 19:30 이기대성당
 지휘 : 최유정(010-3923-1692)
 단장 : 김정숙(010-8556-8346)

메리놀병원 자원봉사자학교 수강생 모집
 교육 : 3.3~6.9 매주 목요일 / 접수 : 2.29(월)까
 지 자원봉사자 및 홈페이지 참조(서식다운가능)
 문의 : 461-2745(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람)

가톨릭심리상담소 행복나눔의전화 : 463-7866
 상담 : 월~금 10:00~16:30(중구 대청동)
 내방상담 : 신자, 비신자 및 타종교인(전화 예약)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 토요일 10:00~16:30
 상담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및 전문상담사

제3기 영성심리상담 강좌(3급 기초과정)
 · 3.7~6.27 매주 월 14:00~17:00 · 가톨릭센터 3층
 과목 : 영성과 심리상담, MB에 의한 영성과 기도생활,
 심리검사, NLP의 심리치료기법, 에니어그램 영성
 강좌료 : 15만원(모든 교재 무료 제공)
 강사 : 조옥진 신부(상담심리학 박사)
 특혜 : 한국상담학회 수련과정 인정

교육 · 모집 · 기타

사랑의성모수녀회 가족 미사
 · 2.15(월) 14:00 · 수녀원
 문의 : 756-3266, 010-5648-3266

삼위일체수녀회 '3+1 미사'
 · 2.15(월) 19:30~21:30 · 영주동 본원
 대상 : 미혼남녀 누구나 / 문의 : 463-7660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회 미사
 · 2.19(금) 10:00 · 사직대건성당
 문의 : 582-1774, 010-9081-1743

밀양가르멜수녀원 후원회 미사
 · 2.20(토) 11:00 · 남천성당 소성전
 주례 : 이흥기 몬시뇰 / 문의 : (055)353-6597

예수고난회 일일피정
 · 2.15(월) 14:00~17:00 · 중앙성당 소성전
 주제 : 나의 수도생활 / 강사 : 정영대 신부
 문의 : (062)571-5004, 010-7728-9314

생활성서사 "신난다 첫영성체교리" 교사 연수
 · 2.25(목)~26(금) 10:00~17:00 · 푸른나무교육관
 문의 : (02)945-3300, 010-3193-3348

전교가르멜 사순 젊은이 피정
 · 2.28(일) 10:00~17:00 · 연산동 청원소
 대상 : 34세 이하의 모든 젊은이
 문의 : 010-9479-7334

마리아학교 기초 과정 모집
 · 2.16~5.10 매주 화요일 14:00~17:00(3개월)
 · 마리아 피정 센터 / 회비 : 8만원(납부 가능)
 내용 : 성경(교부, 역사, 전례) 속의 마리아, 참된
 신심, 봉헌 / 문의 : 010-9620-4820, 634-4845
 (우리은행 1006-301-276411 티없으신 성심)

성경통독 피정 "이 어린이처럼"
 내용 : 어른용 어린이성경, 신구약전체 통독
 · 2.26(금) 17:30~28(일) · 성심영성센터
 문의 : 581-3114(예수성심전교수녀회)

이론화 수업 "밤 · 낮 하루가 지났다"
 개강 : 3.4(금) 14:00~17:00(12주간 1학기)
 내용 : 기도와 함께하는 나의 이론화
 문의 : 581-3114(예수성심전교수녀회 영성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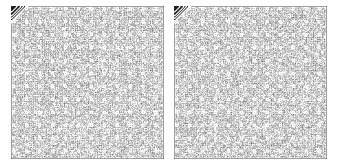
중고등 "영화로 글쓰기"
 "영화비평과 원작문학을 이해하면서 글쓰기 능
 력 키운다!" / 대상 : 중3, 고등학생(3월 개강)
 · 매주 토요일 17:00~19:00 / 글쓰기종류 : 자기
 소개문, 묘사문, 문학원작비교, 편지글, 비평글 등
 문의 : 622-2431, 3127(살레시오영성직업 남천동)

성분도치과병원 조리실 근무자 구함
 조리분야 경력자 모집, 서류심사, 면접 후 채용
 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면허증 사본(해당자)
 문의 : 752-9023(성분도치과병원 총무과)

성녀 예수의 테레사 기도학교(GOT)
 대상 : 교요가운데 성녀의 기도영성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신자
 · 매일 1,3주 월 10:00, 19:30 / 개학 : 3.7(월)
 수강료 : 10만원(한 학기당) / 문의 : 865-7334,
 010-2859-7765(전교가르멜수녀회)

배상섭 신부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 4.1(금)~11(월) · 이스라엘, 이태리 410만원
 · 5.24(화)~6.6(월) · 러시아, 북유럽 (대한항공)
 문의 : 247-5858, 010-3837-6434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의성요한외로방사수도회	2.20(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2.21(일) 13:30	본원	010-2835-4858
한국외방선교수녀회	2.21(일) 14:00	부곡동 본원	010-9319-1690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입니다.

성바오로수도회 "말씀으로 마음치유" (독서치료)
 · 3월부터 매주 목요일(10주간)
 오전반 : 10:00~12:30 저녁반 : 19:00~21:30
 · 가톨릭센터 1층 성바오로 서원 / 참가비 : 없음
 대상 : 30대~50대 가톨릭신자 / 문의 : 521-8898

트라우마치유 워크샵 참가자 모집
 · 4.9(토)~12(화) · 마리아피정센터
 접수 : 1.18(월)~3.30(수), 선착순 40명
 강사 : Dennis 신부, Efu 수녀 / 문의 : 900-0004

원돌실버타운 신축 입주자 모집
 총 47세대(20평형 청약 진행중) / 대상 :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심신건강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성당, 휘트니스센터, 사우나, 물리치료실, 각종
 프로그램실 - 부산성모병원 및 메리놀병원 연계
 · 부산 수영구 연수로 260번길 53(망미동)
 문의 : 758-6231

5차원전면학습교정리더십 특별과정(44차)
 · 2.24(수)~26(금) · 구미선산청소년수련관
 참가비 : 28만원 / 주관 : 살레시오수녀회
 대상 : 초, 중, 고, 대학생(선착순 30명)
 문의 : 010-3883-7004, 다음카페 우아청 참조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프로그램
 문의 : (031)946-2337~8, www.jesumaum.org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 3.18~20, 4.8~10 시작 17:30
 3.7~15, 3.28~4.1, 4.18~26, 5.9~13 시작 14:00
 이나시오 영성수련 : 3.18~20 시작 17:30
 내적여정 에니어그램 : 기본과정 2.25~26 시작 15:00

살레시오회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1년과정(기계가공조립과정, 00명) / 마감 : 2.28(일)
 대상 : 만15~26세 남자 / 문의 : (02)828-3600
 교육 : 기계가공, CAD/CAM, 자동화기계, 인성교육
 ※ 교육비, 기숙사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고집반
 운영, 방통고 편입학지도, 취업알선, 면접전형

인간존중 생명사랑 부산가톨릭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총원 및 등록
 ■ 기간 2월 3일(수)~17일(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up.ac.kr) 참조

메리놀병원
폐렴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폐렴 적정성 평가)
 폐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5위(통계청 2014년 사망원인 통계)
폐 질환 치료 잘하는 병원 선정!
 문의 : 461-2669(호흡기내과)

가톨릭선학 복음문화나눔 행복한 세상
 *무료 2004년 12월 26일 태극, 인류 최대 쓰나미, 그 가운데 한 가족이 있었다
더 임팩서블 일시, 2.22(월) 19:00
 복음문화 영화상영 장소, 가톨릭센터 소극장 (예술전문관 CNC)
 가톨릭센터를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무료 / 단체 문의 :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 · 탈자를 발견하시면 우편이나 팩스(629-8756),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국가 공인 1급 조율사 직영점 -
야마하중고피아노직수입
삼익영창그랜드피아노판매
 중고 피아노 사고 팝니다
 조태상(클라로) · 이정미(노엘라)
851-4545, 010-3597-4641

선비목집
 통영산 굴 코스요리 개시
 굴구이, 생굴회, 연어 샐러드
 굴전, 굴탕수육, 굴국밥
 입 안에 바다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 목 요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553-3929 동래 메이트 정문영, 주차원

동래로타리
독일보청기
 교우특별할인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지하철수안약 7번 출구 앞(국민은행 옆)

입소 상담
 한돌 실버타운 **758-6231**
 한돌 요양센터 **751-0561**
 로사사회봉사회 www.rosa.or.kr
 대표이사 맹진학(라파엘) 신부

라이프치과의원
 치의학 박사, 최 계 훈(바오로)
 치의학 박사, 박 찬 아(요한 급구)
원데이 임플란트
치아 살리기 치료
 해운대 31번 종점 맞은편
743-3334

바른성모안과
 망막, 백내장, 녹내장
 원장, 최 배드로(한국망막학회 정회원)
242-0075
 서구정 옆 바른병원 3층

동래참사랑재활요양병원
광안참사랑재활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매, 중풍, 간병 치료, 양 · 한방 협진
 동래 :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 751-1515 김명희(야네스)

50년 전통 명신당
 귀금속 예물 도매 상담환영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646-7885
010-3599-7885

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햇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 (에스텔)
 의뢰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

사랑과 정성으로 만드는 이불
명주이불
 대표, 이 현 정(수산나)
624-2378
010-3871-7126
 남천성당 옆 서쪽대로변